

#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 담당자 : 여성정책연구소 전희진 부연구위원  
(063-280-7183)

보도시점 : 2021년 12월 2일(목)부터

##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지원 강화 필요

- 코로나19 이후,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심화되는 경향
-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결식상황은 해소되었으나, 균형잡히고 건강한 식생활의 보장이 필요

- 코로나19 이후 기본적인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먹거리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어,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먹거리 돌봄 체계 마련이 요청된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전북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 전희진 박사(연구책임)는 국내 및 해외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 첫째, 먹거리 돌봄사업 운영주체가 지원사업별로 다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먹거리 돌봄사업 주체가 요청된다.
- 둘째, 먹거리 취약계층 선발에 있어서, 긴급지원 시스템 마련과 같

은 취약계층 선정·지원에서의 자율성 확대가 요청된다.

- 셋째, 먹거리 돌봄이 지역의 자율적 돌봄 참여주체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 확대를 통해, 한끼당 지원금액이 6000원인 아동 지원 금액 수준으로의 상향과 배달서비스 간격 단축 등이 요청된다.
- 마지막으로, 겉으로 보기에 먹거리 빈곤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어, 먹거리 돌봄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닌 빈곤 청년이나 독거 중장년층을 비롯한 먹거리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